



겉포장기 개발 전문기술 고집

결속기·제함기 등 선진수준 받돋움

이달로 회사운영 10년

포장기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과 다양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상품의 겉을 포장하는 외포장 기계들이다.

겉포장기인 봉합기, 제함기, 결속기 등 많은 종류의 포장기계들이 산업 현장 요소요소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번달로 포장기계 시장에 뛰어든지 10년이 되는 상원포장기공업사(대표 심용택)는 오로지 외포장 분야의 기술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업체이다.

상원포장기계의 심용택 사장은 장인정신을 앞세워 외포장기계만을 고집스럽게 제작해 업계에서는 의지의 기술인으로 알려질 만큼 결속기와 제함기하면 이 회사가 거론될 정도이다.

상원포장기가 탄생한 것은 심 사장이 선친이 경영하던 제과회사에 입사해 일을 하기 시작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만 해도 소규모 제과사들은 포장기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본 심 사장은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위생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포장기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심 사장은 지난 77년 자동포장기의 전신인 접착식 전기밴딩기를 시작으로 외포장기계 제작에 입문했다.

이때부터 더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기술을 축적해 온 그는 10년전인 84년 10월 독립하여 상원포장기계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됐다.

심 사장은 이같은 집념으로 밴딩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헤드를 완전 국산화하여 국내에서 제작되는 기계에 채용, 이 분야는 1백% 국산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화·성실·창의를 사훈으로 내세워 뛰어난 능력보다는 성실하게 자

기개발로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로 끌여가고 있는 상원포장기는 이에 걸맞게 소수의 정예요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사원이 없는 회사라 자랑할 정도로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노력하는 마음, 적극적인 사고방식, 확인하는 마음, 협동하는 마음, 상경하예를 실천사항으로 정해놓고 이를 실천하는 데 소홀함이 없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이 같이 인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결과인지 이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과는 거리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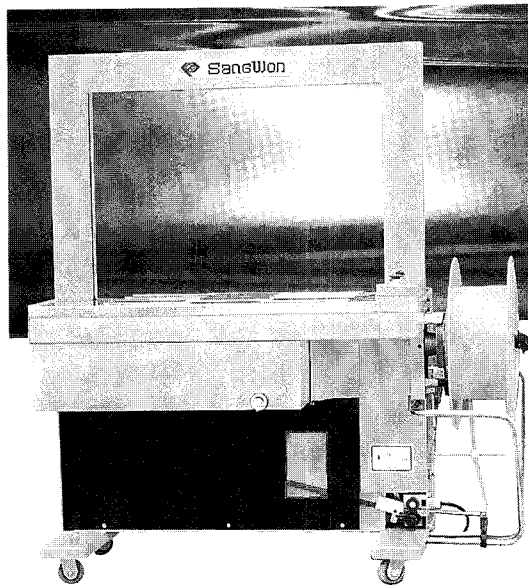
상원포장기는 모든 종업원이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로 화노애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도 종업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

사훈이나 실천사항은 심 사장이 그동안 느껴왔던 경영을 종합한 것으로 회사를 이끄는 구성원이 화합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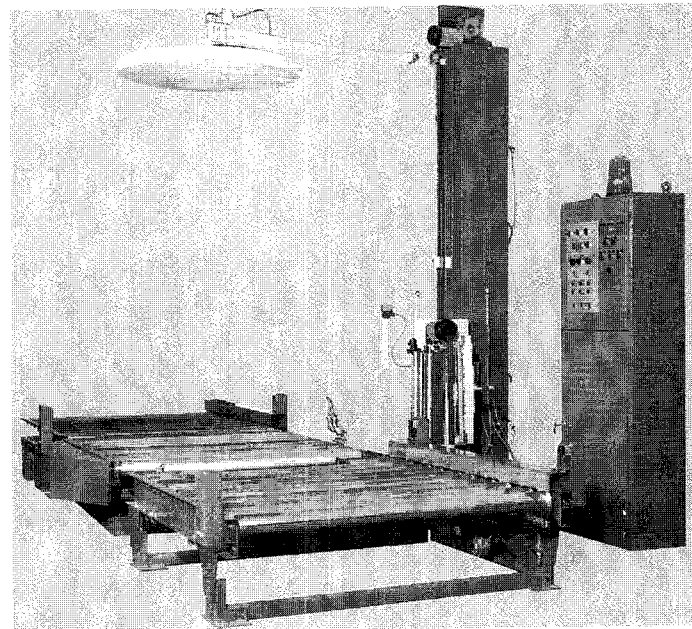
화합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기술개발로 지금 세계가 벌이고 있는 무한경쟁을 예견하듯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심 사장은 “국내 밴딩기계는 팔기에만 급급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업계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상원포장기계가 생산하고 있는 기



◀ 자동스트랩핑기 SA-850



▼ 원전 무인화 전자동 팔레트 스트랩핑기 SWM-2000P

종은 밴딩기, PP밴드, 포장자재, 포장시스템, 랩핑기, 제함기, 바인더 등 수없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자동결속기, 랩핑기, 제함기는 주생산품목으로 성능을 계속 발전시켜 이제는 외국의 기계와도 경쟁에서 앞

서 나갈 정도이다.

자동 PP결속기는 무주유 방식으로 다양한 산업, 상업적인 환경에 최적이고 자동 팔레트 스트랩핑기는 적재물 높이를 센서가 감지하여 자동으로 포장해 준다.

탐 방
상원포장기
공업사

또한 반자동 제함기는 크기가 작고 구조가 간단하며, 포장작업시 작업공간의 극대화 및 포장공정의 라인화로 작업환경 개선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탭핑기는 박스크기의 폭, 높이조정이 자유로와 포장비용과 시간절약에 최적이다.

상원이 국내 실정에 적합토록 개발한 이 기계들 외에도 작업장의 환경과 규모, 작업물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제품들을 언제나 제작할 수 있으며, 애프터서비스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 사후 봉사에도 힘쓰고 있다.

완벽한 애프터서비스를 위해 상원포장기는 부속품실 및 개발실을 두고 고객들이 요구할 때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고 있는 상원은 국내 경제도 세계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침체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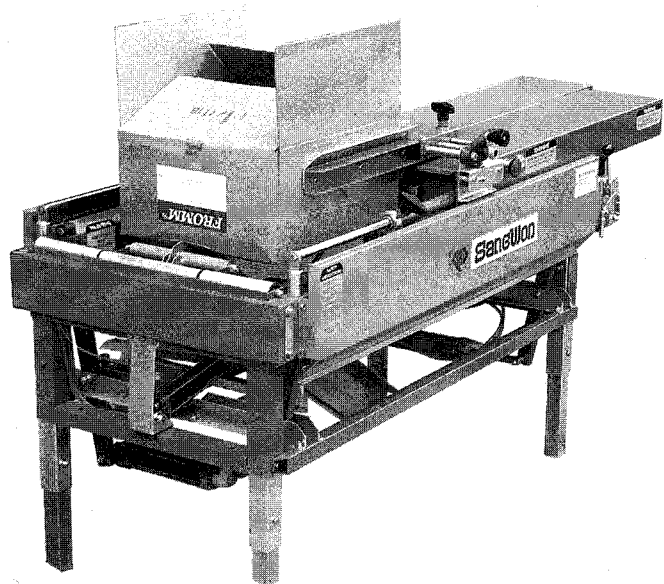
심 사장은 "우리 포장업계는 치열한 경쟁으로 힘들여 만든 제품이 제값도 못받고 있다"며 "업체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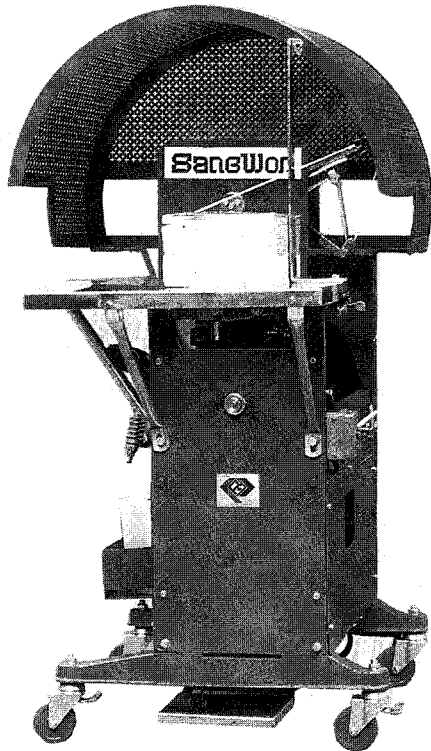
▲ 초소형 스트랩핑기 SS-85M

부품실 · 개발실 운영

양질의 기계를 제작하겠다는 신념으로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



▶ 작업공간 극대화를 이룬 반자동제함기 SGO-50



▲ PE, 로프 자동 타임기

상원포장기계가 생산하고 있는 기종은 밴딩기, PP밴드, 포장자재, 포장시스템, 랩핑기, 제함기, 바인더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서도 자동결속기, 랩핑기, 제함기는 주생산품목으로 성능을 계속 향상시켜 이제는 선진 외국기계와의 경쟁에서도 앞서 있을 정도이다.

이같이 과열된 업체간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의 접촉을 빈번히 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 심 사장은 이를 위해 스스로 축적한 기술을 전수하고 신기술에 대해서는 동종업계에 알려주는 등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계의 핵심부인 설계실과 부품실을 개방하여 상원부터 벽을 허무는 업계 화합을 위한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업계 공동이익을 주관할 단체가 조속히 구성돼 소모적인 경쟁을 피하고 화합으로 선진기술에 대처해야 한다”는 심 사장은 “업체가 과열경쟁에 나설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인

력양성 등 현안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심 사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동화 설비자금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필요한 업체에 적절히 돌아가는 신속적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10년이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한다.

기술을 집합적으로 사용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원은 올해를 외포장기 완전 국산화의 시발로 잡고 있다.

인화와 창조를 내세운 상원은 앞으로 주변 경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로 당당히 앞서 나갈 것

이 분명하다.

오선진 기자